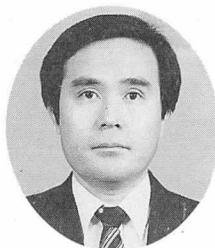




지부장 코너

협회 참여와 양돈산업 발전방향



김위진
(김해지부장)

변화와 개혁의 물결속에 국제 무역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 양돈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에는 수입곡물에 의존해야 하는 양돈업의 특수성과 질병, 인력부족, 국내의 축산분뇨에 의한 환경오염 등 사회적인 문제점을 고려할 때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 사료된다.

더 더욱 무서운 것은 시장 개방으로 인한 우리 양축농민의 생산 의욕저하라고 생각하며 정부의 역할과 농민의 역할, 학계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 사료된다.

1. 강력한 협회 창조를 위한 동참이 필요

먼저 우리 양돈인은 우리 스스로 필요에 의하여 설립하고 설립 이념으로 양돈인의 권익 보호와 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 양돈인의 단합과 단결, 공동체의식 고취로 우리의 생업을 지키자는 양돈협회에 우리나라의 양돈인이라면 모두 참여하여 냉엄한 세계속에 한국 양돈산업 발전을 위해 한 목소리와 분야별 연구, 노력, 정확한 세계 양돈정보를 파악하여 강력한 협회 창조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농경사회에서 오늘의 산업사회가 있기까지 우리 양돈인은 우리사회의 각계 각층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으며 산업사회의 밑거름이 되었음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양돈 산업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의 경제적 안정과 생산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시급하며 사회적 문제점인 환경오염 규제로부터의 해방 등 제도 마련을 위해 협회의 중요성을 양돈산업의 생명이라 생각해야 하며, 전 농가의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학계, 축협 등은 협회로 농민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홍보와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한 목소리의 양돈협회, 전 농가의 이익을 위한 양돈협회, 산업발전을 위해 연구하는 양돈협회로 발전할 때 강력한 양돈 행정으로 발전하는 축협, 경쟁력있는 양돈산업으로 발전될 것이며 이를 위해 양돈인은 협회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다.

2. 양돈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와 학계의 역할

세계속의 한국 양돈산업 발전은 정부의 역할 없이는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우선 업종협회에 참여하지 않고 자기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다면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있는 협회를 비방하고 경시하는 사람이 정부에 조언하고 산업발전 계획을 설명한다는 것은 자기 역할을 못하는 자가 남을 원망하는 처사이기에 이런 소수의 목소리를 정부는 경계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양돈농민이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산에 저해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분뇨처리를 보면 축산 선진국은 처리방법을 엄청난 투자로 연구하고 다시 자연으로 환원하고 있으며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축산인의 축협에서 자금 염출, 경종농업의 협동조합에서

자금 염출을 하여 농경지의 작물을 수확 후 연 2회 축산농민이 저장탱크에서 잘 숙성된 발효액 비를 농지에 살포하고 경운(밭갈이)하여 지력 상승으로 인한 경종농업의 발전과 조화로운 운영으로 경종농민, 축산농민간의 서로 고마워하며 인심좋은 농촌을 생각할 수 있다.

축분뇨를 자원으로 이용하여 발생하는 국가의 이익을 생산성 향상에 전념하여 경쟁력을 갖추는 것을 보고 우리도 하루 빨리 정부적 차원의 제도화와 지원으로 생업인 축산업을 하다 환경사범 전과자가 되는 축산농민을 구제함과 경쟁력 향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하겠다.

또한 현재 세계 주요 곡물 생산국인 미국, 중국, 캐나다, 동남아지역은 자국의 이익과 안보차원에서 곡물을 특별 관리할 계획이므로 가축의 사료 자원을 외국에 의존해야하는 우리나라 양돈산업의 특수성으로 곡물 생산국에서 뜻있는 양축가로 하여금 직접 가축을 사육케하여 얻어진 이익을 현물(사료곡물)로 본국으로 가져오게 하여 국제 식량생산 거점 확보로 값싼 농지를 임차, 구입하여 경작 및 대리경작, 계약재배 등의 방법으로 생산된 사료곡물을 국내 축산업에 이용할 수 있도록 사료곡물을 안정되게 공급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종축개량의 소홀한 과정이 없도록 우량 종축 생산에 투자와 감독을 철저히 하여 사업성에 치우기 쉬운 민간 종축 사업자의 엄격한 감독과 농민이 신뢰하는 국립 종축장의 확대와 연구원의 확충 및 많은 투자로 저렴한 값에 더 많은 우량 종돈을 보급하여 안심하고 필요할 때 공급받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경쟁력을 갖추게 하는 정부의 방안일 것이다.

정부는 양축농민의 조세부담을 축소해야 할 것이다. 돈육을 생산하는데 생산비의 비중이 경쟁국에 비해 너무 높다. 전세계의 식량 무기화의 조짐이 여러 차원에서 보인다. 우리는 우리의 식

량생산을 안보적 차원에서 지원 육성해야 하며 식량을 생산하는 농민은 국방을 위해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장병들과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전 국민이 하여야 하며 이런 차원에서 생산에 저해되는 제도나 조세부담을 영세화하여 경쟁 대상국과 경쟁할 수 있는 대책 마련도 정부의 역할이라 할 것이다.

우리 농민의 산업별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이 나라의 대학은 모든 노력을 해야할 것이며 우리는 학자님들의 연구 노력을 크게 기대하고 있다. 학문을 산업 현장에 접목하며 후진양성으로 다음 세대를 설계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의 역할이란 중차대하다. 안보적 차원에서 식량생산에 전념하는 농민을 위해 오늘까지 많은 연구 노력 을 해주었으나 더 많은 기구 확대와 후진양성을 위해 끝없는 투자로 경쟁력 확보 방안의 방향제시를 해주시리라 믿으며 오늘까지 선진농민 선진조국의 초석이 되어 주신 노고에 진심으로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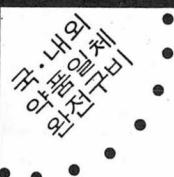
개 숙여 감사드리고 싶다. 그러나 간단하고 가장 효율적인 축산분뇨 자원을 자연으로 환원할 수 있는 선생님들의 연구결과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때이라 생각한다.

3. 산·학·관의 단결을 통한 선진 축산 건설

분야별 자기의 역할을 잊지않고 자기일에 충실할 때 우리의 미래는 밝을 것이며 세계화, 국제화 시대에 밝은 미래 창조와 후세에 부끄럽지 않게 우리 모두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여야 할 것이다.

산, 학, 관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 대동단결하여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대처하여 선진 축산국 만들기에 우리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창간 16주년을 맞은 월간양돈의 역할을 기대한다.

동·물·약·품·도·매·전·문



정직과 신용으로 달려온 외길 40년
21세기를 고객과 함께 열어갑니다.

유통의 KNOW HOW를 가진 (주) 협성가축약품이 귀사의 적정재고를 유지시켜 주며 필요한 약품과 정보를 가장 빠른 시간에 최소의 비용으로 공급하여 귀하의 사업을 성공으로 인도합니다.



(주) 협성가축약품

— 동물약품도매전문 —

-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287-31
- 본사 : 967-8779/964-4870
- 청량리영업소 : 965-9778
- FAX : 960-1894